

SBM 해설

성숙을 위한 셀프성경묵상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SBM은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성경 교재가 아니다. SBM은 성도 스스로 성경을 읽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려 드리며, 그분과 임재동행하도록 돕는 셀프성경묵상법이다.

SBM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지식의 축적만이 아니라 성숙이다. 성경읽기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귄이 되게 하고, 그 사귄을 통해 사람이 미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SBM의 중심 목적이다.

1. SBM을 디자인하게 된 기초

1.1. 필요성: 미숙에서 성숙으로

SBM은 성도 스스로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읽어 미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적 필요에서 출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소식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목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현실적 위기를 절감하게 되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이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성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리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귄 안에서 자라나는 성숙을 말한다.

1.2. 개발 과정: 여러 성경읽기와 묵상 경험의 총화

SBM은 어느 한 가지 성경공부 방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오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성경읽고 독후감 쓰기

→ 개인 경건의 시간(QT)

→ 귀납법적 성경연구 방법론 & 성경 강해설교

→ 성경통독

→ 그룹 성령터치 성경통독나눔

→ 정점 성경통독 연구 방법론

→ 성경 통권설교

→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 큐인 성경묵상법

→ 성숙을 위한 셀프성경묵상(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 사귄을 위한 셀프성경묵상

이 과정은 단순한 방법의 나열이 아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할 때부터 지속된 성령님의 인도과 지문을 느낄 수 있는 영적 성장과 도약의 단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 마가복음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단계

에서 시작하여 대학 시절 개인 경건의 시간과 신학생들과 함께 했던 귀납법적 성경연구, 성경 강해설교를 거쳤다. 이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는 탈북자, 조선족들과 함께 몰입했던 성경통독, 과학자들로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함께 읽고 나누었던 그룹 성령터치 성경통독나눔, 태국의 선교사들과 함께 했던 정점 성경통독 연구 방법론, 그리고 한국의 목회 현장에서 성경 전체의 각 권을 한 편의 메세지로 전하는 성경 통권설교로 발전하였다.

또한 거룩한 독서인 렉시오 디비나와 큐인 성경묵상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 모든 경험이 지금의 성숙을 위한 셀프성경묵상으로 압축되었다. 따라서 SBM은 기존 방법을 단순히 혼합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점을 거치면서 성경읽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귄으로 이끌기 위해 형성된 결과이다.

1.3. 목적: 살아계신 하나님과 통하는 임재동행

SBM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통하는 임재동행이다. 여기서 “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것을 뜻한다.

성경묵상은 글의 뜻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뿐 아니라 왜 그것을 원하시는지, 그 안에 어떤 심정이 담겨 있는지를 헤아려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리며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SBM이 말하는 임재동행이다.

1.4. 목표: 성경읽기가 하나님과의 사귄이 되도록

SBM의 목표는 성경읽기가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읽는 것, 그리고 그것을 헤아려 가는 전 과정이 성숙 과정이다. 그러므로 SBM에서 성경읽기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나 과제 수행이 아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그 사귄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1.5. 주의: 안내서가 성경을 가로막지 않도록

성경 안내서가 성경 자체를 읽는 기회에 방해가 되거나 한계를 정해버리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성경을 잘 읽도록 돕기 위해 만든 교재나 안내서가 오히려 성경 본문보다 앞서면, 사람은 성경 자체보다 안내서의 해석과 정답에 의존하게 된다. 안내서는 성경으로 들어가게 하는 도구여야지, 성경을 대신하거나 성경 이해의 한계를 미리 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SBM이 복잡한 교재를 만들지 않고 단 한 장의 지침을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6. 방법: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진전하기

SBM은 간단한 일련의 지침만으로 스스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진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묵상자는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직접 읽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느끼며 성령님의 조명을 구한다.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본문을 반복하여 읽을수록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는 폭과 깊이가 더해진다.

1.7. 도구: 성경 한 권과 한 장의 지침서

SBM은 한 장으로 된 무교재 셀프성경묵상법이다.

오직 성경 한 권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은 다양한 독서의 유익을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조직 신학의 성경론에서 '성령의 충족성'을 따라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스스로 그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 준다는 신앙고백이다. SBM은 성도가 스스로 성경 읽기와 묵상을 지속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태도와 방법을 전수하려 한다. 별도의 교재를 계속 구입하거나 인도자의 해설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성경과 한 장의 지침을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고, 그 묵상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

1.8. 초점: 하나님·말씀·교회에서 성령님·성경·가정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그 간 교회와 성도가 안전하게 성장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보호벽이 되어 주었다. 이제는 그 보호벽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깊은 샘과 높은 빛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이라는 말을 성령님, 성경, 가정 중심이라는 말로 초점을 좁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하나님, 말씀, 교회를 부정하거나 약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 중심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의 실제적인 관계로 연결하고, 설교와 동일시 되기도 하던 말씀이라는 말의 중심을 기록된 성경을 직접 읽는 일로 구체화하며, 교회 중심을 교회됨의 가장 기초인 가정에 정조준 하려는 것이다.

SBM은 시선과 관심을 보다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신자의 현실과 연결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하고 신비로운 사림에 기반하여 그 사림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일상의 현실에 연결점을 갖도록 안내한다.

1.9. 과제: 세대 통합 교재로의 개발

SBM은 세대 통합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 어린이에게도 문해력, 상상력, 공감능력을 자극하여 생각과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는 어른 성도들에게도 절실한 상황이다.) 어린이를 위한 SBM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이다.

성경은 특정 세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과 장년, 노년 세대가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각자의 언어와 경험으로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리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말씀과기도교회에서 이를 시연하고 있는데, 이 일은 우리의 특권이고 과제이고 도전이다. 유대인에게 하부루타가 있다면, 기독교인에게는 셀프성경묵상 나눔이 있다고 말할 수 있길 바란다.)

1.10. 기대: 인공지능 시대의 참 사람됨

SBM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아젠다가 될 참 사람됨, 즉 영성, 하나님과의 소통, 창의성, 공감능력, 태도 등이 자연스럽게 개발될 것을 기대한다.

인공지능이 지식과 정보 처리의 많은 영역에서 인간을 능가할수록, 사람에게는 지식의 양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참 사람됨이 중요해진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성, 다른 존재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능력, 주어진 답을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생각하는 창의성,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중심태도 등이 성경묵상과 하나님과의 사림 속에서 함께 자라날 수 있다.

2. SBM의 특징

2.1. 성숙을 위해 디자인된 묵상법

SBM은 성숙을 위해 디자인된, 스스로 성경을 묵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묵상법이다.

SBM의 목적은 정답을 많이 아는 성경 지식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종과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2.2. 교재가 없는 단순함

SBM에는 별도의 교재가 없다. 그만큼 단순하다. 다만 가르치려 하지 않고, 공부하듯 하지 않아야 한다.

교재가 없다는 것은 내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 자체가 교재가 된다. 가르치려는 태도와 공부하듯 정답을 찾는 태도를 내려놓을 때, 묵상자는 본문과 직접 만날 수 있다.

2.3. 성경 한 권으로 가능한 개인 묵상과 그룹 나눔

성경 한 권만으로 개인 묵상과 그룹 나눔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 물론 인터넷 등 현대적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중심은 성경 한 권이지만, 필요하다면 인터넷과 사전, 지도, 영상 등 현대적 도구를 활용하여 배경을 확인하고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다만 도구가 성경 자체를 대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4. 스스로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경험

타인의 안내보다 스스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은 흥미진진할 것이다.

누군가가 정리해 준 답을 받아들이는 것과 스스로 성경을 읽으며 깨닫는 것은 다르다. 스스로 질문하고 발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 쌓일수록, 묵상자는 말씀을 읽는 기쁨과 자신감을 얻게 된다.

2.5. 성경의 충족성을 실제로 믿는 묵상

성경 교재가 오히려 성경 본문을 접할 기회를 방해하는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충족성', 즉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 그대로를 믿지 않는가?

성경의 충족성을 믿는다면 성도들이 성경 자체를 읽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야 한다. SBM은 그 고백을 묵상의 실제 방법 안에서 구현하려는 시도이다.

2.6. 기존 교육교재의 대체와 업그레이드

SBM은 기존의 정형화된 교육교재 등을 대체하거나 업그레이드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교육교재를 폐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존 교재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데 머물렀다면, SBM 방식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직접 본문을 읽고 질문하고 나누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2.7. 한 장의 지침으로 압축된 전 과정

SBM에는 교재가 없고 단 한 장의 지침서가 있을 뿐이다. 모든 과정이 한 장의 묵상 지침으로 압축되었다.

스스로 묵상하기가 익숙해지더라도 문자로 된 이 지침을 계속 활용하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제 묵상 경험에 따라 스스로 지침을 보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2.8. 성경 공부·연구·묵상의 총화

SBM은 개인 성경 공부, 연구, 묵상의 총화 또는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공부와 연구,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을 분리하지 않는다. 공부와 연구와 묵상이 하나님과의 사귄과 성숙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도록 한다.

2.9. 영적 성숙과 친밀한 사귀를 향한 지침

SBM은 여러 방법을 단순히 종합해 놓은 것이 아니다. 영적 성숙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귀로 안내하는 지침으로 의도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질문과 과정은 단순한 본문 분석을 넘어, 묵상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하도록 안내한다.

2.10.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사람으로부터 확인받은 과정

SBM의 탄생 과정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사람으로부터 확인받는 여러 차례의 단계들이 들어있다. 신비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를 이 지면에서 다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절실한 상황과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 속에서 얻은 내용을 구체화하고 나면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확증해주는 책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오히려 기도 속에서 얻은 것은 책으로부터 배우는 것들 보다 더 통합적이고 실제적이었다.

지금의 SBM은 개인 공부와 깨달음만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여러 차례 수정하고 보완한 결과이다.

2.11. 단순하지만 단조롭지 않은 묵상

SBM은 단순하지만 단조롭지는 않다. 반복할수록 영적 이해가 축적되고 영성의 깊이가 더해진다. 생각하는 힘이 자라나고 한 주간을 생생하게 동행하였다는 간증이 쌓여가고 있다.

지침은 같아도 성경 본문이 다르고, 묵상자의 형편이 다르며, 그때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이 다르다. 그러므로 같은 과정을 반복해도 묵상은 단조로워지지 않는다.

2.12.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남는 묵상

묵상이 끝나면 내용이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남는다. 저절로 기억되고 언제 어디서든 묵상을 이어갈 수 있다.

여기서 이미지와 동영상은 단순한 시청각 자료만을 뜻하지 않는다. 본문의 장면과 인물과 흐름이 마음속에 생생한 이미지와 동영상처럼 형성된다는 의미다.

2.13.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하는 묵상

묵상이 끝나면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매번 그 마음에 접촉하며 감격과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SBM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아파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과 기다리시는 것을 헤아리도록 돕는다.

2.14. 하나님·사람·세상을 아는 지식의 축적

SBM은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에 이르는 성숙에 이르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묵상 과정을 반복할 때 하나님-사람-세상을 아는 지식이 축적된다. 그 과정에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구축되어 간다. 또는 교정되어 간다. 한 본문에서 얻은 깨달음이 다른 본문과 연결되고, 그 연결이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한다.

2. 15. 열린 결론, 성급하지 않은 적용

SBM 묵상을 할 때는 언제나 성경의 부분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결론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 결론이 있으되 유연하게 열어 놓는 태도를 권한다. 이런 작은 결론들이 다른 결론들과 어우러지면서 참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성장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므로 적용에 있어서 조금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말씀을 읽고 전혀 적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읽고는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것은 더 문제일 수 있다. 이 말은 적용을 미루라는 말이 아니라, 적용에 조심스러운 태도, 부드럽고 유연한 태도, 율법적이지 않은 겸허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2.16. 4차 산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

SBM은 코앞에 다가온 4차 산업시대/인공지능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스스로 든든한 성도로 구비되게 고안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공감능력, 창의력, 문해력 등이 개발된다. 정답을 외우는 능력보다 말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며, 다른 존재의 심정을 헤아리고, 새로운 상황에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2.17. 세대 통합교재

SBM은 세대 통합교재를 지향한다. 누군가 어린이들에게 알맞게 변환시켜 주기를 기대하며, 말씀과기도 교회 어린이와 중고등부 주일학교에서 시도하고 있다.

핵심 원리는 유지하되, 질문과 언어와 진행 방식을 어린이의 수준에 맞게 변환할 수 있다.

2.18. 개인 묵상과 나눔 모임의 연결

나눔 모임에서 개인 묵상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SBM은 홀로, 스스로 묵상해 가는 방법으로 고안되었지만 함께하면 더 풍성하고 즐겁다.

개인이 따로 공부한 내용을 다시 준비할 필요 없이, 자신이 묵상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함께 나누면 된다.

2.19.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도움

나눔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각 사람은 같은 본문을 읽어도 서로 다른 장면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서로의 묵상을 들으면서 혼자서는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더 풍성하게 헤아릴 수 있다. 함께 나누면서 영적 시너지를 경험할 수 있다.

2.20. 인도자의 역할: 경청과 응원, 성령의 인도를 기도

인도자가 할 일은 오직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이다. 인도자는 다양한 나눔을 경청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작 전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님께 깨어있어야 하는 한 사람으로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

일방적이지 않은, 주고받는 대화는 언제나 유익하다. 인도자는 정답을 판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이 본문과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마당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2.21. 가르치지 않는 일이 어려울 수 있음

인도자가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그에게 어렵다면, SBM은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다.

많이 아는 인도자일수록 설명하고 정답을 알려주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SBM에서는 인도자가 자신의 지식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의 묵상을 경청해야 한다.

2.22. 덤으로 따라오는 성경 지식

성경 지식은 덤으로 따라온다.

그 지식은 이미지와 동영상, 그리고 그때마다의 감흥들로 보다 잘 기억될 것이어서 풍성함과 깊이를 더하게 될 것이다. 지식을 먼저 외우기보다 본문을 생생하게 경험하면, 지식은 그 경험과 함께 오래 기억된다.

2.23. 말씀을 먹고 즐기고 나누는 행복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고 즐기는, 더 나아가서 나누는 신앙생활의 행복이 더해갈 것이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먹여 주는 말씀만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다. 말씀을 즐기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의 행복이다.

2.24. 성경적·통합적이며 열린 방식

SBM을 경험한 이후에 다른 성경 공부 또는 묵상 방법론을 대할수록, SBM이 성경적이고 통합적이며 성경이 가리키는 정점 또는 심점을 지향하는, 그러면서도 열린 방식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SBM은 다른 방법론을 배척하지 않는다. 다른 성경 공부와 묵상 방법론의 유익을 받아들이면서도, 모든 방법을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정점으로 이끈다.

2.25. 송이꽃과 같은 말씀

말씀이 송이꽃과도 같다는 것을 경험한다. 너무 폭 빠지는 것을 절제해야 할 정도일 것이다.

성경묵상이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면, 묵상자는 말씀 안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한다.

2.26. 한 장의 묵상이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음

“언제 성경 전체를 다 이런 방식으로 묵상하겠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나뭇잎 한 장에는 계절이 다 담겨 있다. 찢어진 성경 한 페이지를 간직한 성도가 평생을 고귀한 성도로 살아간 사례도 있다. 단 한 번의 진지한 성경묵상이 그대를 영구적으로 바꾸어 놓을지도 모른다. 단 한 장의 묵상이면 충분할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분량을 끝냈는가만이 아니라, 한 본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사귀었는가이다.

2.27. 성경통독과 SBM의 관계 - 전체와 부분

성경 전체를 읽는 방식으로 성경통독을 활용한다. 부분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짧은 본문, 약 한 장 이내를 택하여 SBM을 시작한다.

성경통독이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보게 한다면, SBM은 짧은 본문 안에 깊이 머물며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리게 한다. 두 방법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부분을 함께 보도록 돕는다.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사귀어 되는 경험을 지금 시작하라. 부디 성숙에 이르러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영적 어른이 되라!

3. 패러다임 관점에서 본 SBM의 중요성

패러다임은 인류 전체가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는 사고의 큰 틀이다. 과학혁명과 산업혁명 등을 거치며 인류의 사고방식과 사회의 구조가 변화해 왔다. 지금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패러다임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SBM은 이러한 변혁의 시대에, 3차 산업사회와 4차 산업사회 또는 인공지능 시대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변혁 속에서 필요한 성숙 방향을 추구한다.

3.1. 이성 중심에서 감성·영성 중심으로

3차 산업사회는 이성 중심이었다. 합리, 냉철, 체계화 능력이 중요했다.

4차 산업사회·인공지능 시대는 감성·영성 중심으로 이동한다. 느낌, 따스함, 공감능력이 중요해진다.

SBM은 감성의 핵심도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공감능력에 있다고 본다. 그 공감능력은 연민으로 나타난다. 또한 영성의 핵심은 종교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다.

3.2. 표준화에서 독특성으로

3차 산업사회는 정답, 고정, 형식을 중시하는 표준화의 사회였다.

4차 산업사회·인공지능 시대는 유의미한 통계적 가능성, 유연성, 본질을 중시하는 사회로 이동한다.

다가올 시대에는 “무지개는 빨주노초파남보.”라고 답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어쩌면 무의미해진다. 더 구체화된 팩트는 그 색과 색 사이에도 무한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이런 종류의 지식은 인공지능이 탁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무지개의 색을 암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름다운 무지개 앞에서 “아!” 하고 경탄하는 것이 더 값질 수 있다. 정답과 형식을 아는 것을 넘어 본질과 아름다움에 접촉해야 한다.

3.3. 가르침에서 접촉 기회와 대화로

3차 산업사회에서는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4차 산업사회·인공지능 시대에는 지식으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본질과 접촉할 기회를 주는 일이 중요해진다.

SBM은 가르치려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대화하고 마당을 열어주어야 한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안 내의 필요성은 있다.

3.4. 획일·경쟁에서 협력·협치로

3차 산업사회는 획일, 경쟁 사회였다. 공부 기능사를 양산하는 과정에서 인간성 소멸이 나타날 수 있었다.

4차 산업사회·인공지능 시대는 협력, 협치 사회를 지향한다. 지식을 체득할 뿐 아니라, 인격적 통합적으로 활약하는 사람을 양성하며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게 된다.

SBM은 인간성, 곧 사람됨의 첫 단추가 영성이라고 본다. 그리고 영성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사귄다. SBM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양한다.

3.5. 분화에서 통합으로

3차 산업사회는 분화의 시대였다. 분리, 분업, 개별, 분석을 통해 측정가능 지수가 올라갔다. 생산력, 효율성, 지능 등이 중요했다.

4차 산업사회·인공지능 시대는 통합의 시대이다. 통전, 통섭, 융합, 전체를 중요하게 여긴다. 측정 불가능 영역이 더 중요해지며, AI는 지능만이 아닌 인간 거의 모든 영역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참 사람됨은 무엇인가?”가 중요한 시대적 아젠더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SBM은 분석 가능한 통합적 사고, 합리적인 지성-영성 겸비 사고, AI를 능가하는 신적 영감과 즐거움을 성숙 방향으로 제시한다.

3.6. 감성·창의성의 필수화

3차 산업사회에서 감성, 창의성은 유익한 것이었다.

4차 산업사회·인공지능 시대에서 감성, 창의성은 생존 또는 정체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특히 영성은 사람됨의 핵심이다.

SBM은 하나님과의 사귄, 그런 사귄을 누리는 사람과의 사귄이 공감능력과 창의력, 그리고 영성을 개발시켜 준다고 본다.

3.7. 성숙 분리에서 삶의 통합으로

3차 산업사회에는 성숙, 곧 거룩과 세속의 분리, 교회·가정·일터 등의 분리,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의 분리가 있었다.

4차 산업사회·인공지능 시대에는 성숙의 통합, 가정-교회-일터 통합, 동서양 통합, 좌우 사상 통합, 과학·신학·예술 등 학문의 통합이 요청된다.

SBM은 표리부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가족과 성도, 동료에게 같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통합적 역할은 '항상 전체를 복되게' 해야 한다.

3.8. 세대·계층 분리에서 세대·계층 통합으로

3차 산업사회에서는 세대 계층이 분리되었고, 교회도 편리성, 효율성을 이유로 세대를 분리하였다.

4차 산업사회·인공지능 시대에는 세대 계층 통합이 중요하다. 이 통합은 다양성, 성숙성, 연결성을 지향한다.

SBM은 이를 세대 통합 예배와 세대 통합 교제로 실천하려 한다.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말씀을 읽고 서로의 경험과 묵상을 나눌 때, 세대 사이의 연결성과 성숙성이 깊어진다.

획일과 경쟁에서 협력과 협치로, 분화에서 통합으로, 성숙과 세대의 분리에서 통합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는 뜻이다.

3.9. 역할·기능 중심에서 관계·네트워크 중심으로

3차 산업사회는 역할·기능 중심이며 부분적 전문성을 중요하게 여겼다. 역할 분담이 중요했지만 몰인격적으로 흐를 수 있었다.

4차 산업사회·인공지능 시대는 관계·네트워크 중심이며 전체적 안목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율, 자발성, 자원함이 중요하며 인격적이다. 역할 순환은 경험 공감 효과를 가져온다.

SBM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자발적인가, 수동적인가?', '살았나, 죽었나?', '맞나 틀렸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는가만이 아니라, 자발성과 자원함을 가지고 살아 있는 관계 속에서 참여했는가이다.

3.10. 유능함에서 성숙함으로

3차 산업사회에서는 유능함이 중요했다.

4차 산업사회·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성숙함이 중요하다. 태도가 경쟁력이 된다.

SBM은 파편화된 유능이 성숙을 통해 화합과 조화를 이루어 전체가 복되게 되는 방향을 지향한다. 유능함이 성숙과 결합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지만, 성숙한 사람의 유능함은 전체를 복되게 한다.

3.11. 기록된 성경에서 기록하신 하나님으로

3차 산업사회에는 진리 탐구의 대학 과정과 진리 수호의 교회가 있었다. 진리 탐구의 과정은 종교로, 진리 수호의 확정은 성경으로 이어졌다.

4차 산업사회·인공지능 시대에는 종교·철학·과학의 진리 상대화가 심화될 것이다. “절대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며, 교회와 성경 권위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SBM은 절대 진리에 가장 가까운 것은 ‘기록된’ 성경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기록된 문자에서 멈추지 않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 ‘기록하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한다. 기록된 성경을 읽는 목적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절대 진리는 우리가 해석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해석되지 이전의 바로 그 말씀과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시다.”

3.12. 하나님-말씀-교회 중심에서 성령-성경-가정 중심으로

3차 산업사회에서는 하나님-말씀(설교 위주의)-교회 중심의 구조가 강조되었다.

4차 산업사회·인공지능 시대에는 성령 중심-성경 중심-가정 중심의 삶이 중요해진다. 여기에는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시스가 자리한다.

이는 하나님, 말씀, 교회를 버리자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임재동행으로, 말씀을 설교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성경을 스스로 읽는 삶으로, 교회를 특정 장소와 제도에만 묶어두는 구조에서 가정과 일터와 각자의 영역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교회가 성도를 끌어들이 교회에 묶어두는 현상은 안 된다. 성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임재동행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주의사항

4.1. 패러다임은 거스를 수 없다

패러다임은 거스릴 수 없는 것이다. 저항하면 고통스럽거나 의미없는 소멸을 의미할 뿐이다.

변화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변화의 방향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숙의 길을 찾아야 한다.

4.2.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패러다임 대전환을 준비해야만 한다. 이것은 한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해당된다.

교회와 교육,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리더십, 성경교육과 신앙생활 모두가 이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4.3. 이전 시대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4차 산업사회는 3차 산업사회를 대체한다기보다는 그 기반 위에 선다.

그러므로 1차 산업, 2차 산업사회로부터 남은 영역들처럼 끝까지 남는 영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영역이 주도적인 영역은 결코 될 수 없다.

이성, 합리, 체계화 능력, 분석, 전문성, 유능함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감성, 영성, 공감능력, 통합, 관계, 태도, 성숙함 안에서 새롭게 자리 잡아야 한다.

4.4. 변화는 인간의 성숙을 요구한다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변화는 인간의 성숙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변화 속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중이 느껴진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식과 기능을 대신할수록, 사람에게에는 영성, 공감능력, 창의성, 관계성, 자발성, 자원함과 같은 성숙한 사람됨이 더욱 중요해진다.

4.5. 교회는 모든 성도를 리더로 구비시켜야 한다

교회는 가정, 일터, 국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리더들을 온전히 구비시키는 사명을 수행한다.

교회는 목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연합이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리더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차세대 리더를 구비시켜야 한다.

교회는 성도를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는 곳이 아니라,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와 국가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구비시키는 공동체이다.

4.6. 성경묵상은 성장과 성숙의 기본이다

성경묵상은 우리가 성장, 성숙하게 돕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그 도구로 '성숙을 위한 셀프 성경 묵상법' SBM를 제안한다.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믿어 간곡한 마음으로 제안한다.)

성도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며,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리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다른 모든 성장과 성숙의 기초가 된다.

4.7.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일곱가지 요건

1) 스스로 말씀을 섭취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말씀을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SBM, 큐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이 먹여주는 말씀에만 의존하지 않고,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며 자신의 영혼을 말씀으로 먹일 수 있어야 한다.

2) 앞선 사람에게 영감·비전·자극과 격려 받기

앞선 사람에게 영감, 비전, 자극과 격려를 받아야 한다. 설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스스로 말씀을 섭취하는 것과 앞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앞선 사람의 설교와 삶은 다음 세대에게 영감과 비전과 자극과 격려를 줄 수 있다.

3) 동료들과 꾸준히 성경을 읽도록 협력하기

동료들과 꾸준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함께하기, 양육 프로그램, 체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인의 자발성이 중요하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지속하기는 어렵다. 동료와 공동체가 함께 읽고 격려하는 구조는 꾸준함을 돕는다.

4) 대화를 통한 피드백 능력

일방적이 아닌 대화를 통해 자기를 돌아보는 피드백 능력이 필요하다. 사귄, 설교 나눔, SBM 나눔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화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한다.

5) 직접 경험을 통한 확장 기회

직접 경험을 통해 지금의 한계를 넘는 확장 기회가 필요하다. 여행, 비전트립, 역사탐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사람과 문화와 역사를 직접 경험하면, 지금까지의 생각과 시야의 한계를 넘어서 수 있다.

6) 간접 경험을 통한 확장 기회

간접 경험을 통해 지금의 한계를 넘는 확장 기회가 필요하다. 독서, 영화 관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다. 독서와 영화 관람은 다른 시대와 문화와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하며 공감능력과 상상력을 확장한다.

7) 성령의 재충만을 위한 말씀과 기도

성령의 재충만을 위한 믿음의 말씀, 사귄의 기도가 필요하다.

성장과 성숙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믿음의 말씀과 사귄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개념은 다음 사람과 다음 세대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수되어야 한다.

맺음말

SBM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성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성숙한 어른이 되도록 안내한다.

성경통독을 통해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읽고, 짧은 본문을 SBM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사람-세상을 아는 지식을 축적해 간다. 그 과정에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구축 또는 교정 되고, 영성, 하나님과의 소통, 창의성, 공감능력, 문해력, 표현력이 함께 자라난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참 사람됨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통하는 영성과,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리는 성숙이다. (한가지를 덧붙이자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는 어진 대리통치자로서의 적절한 중심태도이다.) 그 사귄을 누리는 사람과의 사귄은 공감능력과 창의력과 영성을 개발하며, 파편화된 유능을 화합과 조화로 이끌어 전체를 복되게 한다.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사귄이 되는 경험을 지금 시작하라. 부디 성숙에 이르러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어른이 되라!